

# 탄소산업 고도화로 '강한 경제' 실현

# 농업기술 보급사업 26억원 투입

### 우범기 전주시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탄소기업 등 방문... 성장 방안 모색 전주형 일자리 지정 등 탄소 산업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주력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미래먹거리 탄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3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소산업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운혁), 대한민국 대표 탄소기업인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공장장 서우석), 피치케이블·유니온시티(대표 임동욱)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기관과 기업의 현황과 올해 주요 계획들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에게 힘찬 격려를 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일 전라감영 첫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한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철거현장 방문에 이은 전주 대변역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행정의 연장선상이다.

우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탄소기업 각 대표들과의 소통자리에서 올해 전주형 일자리 지정하고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기관·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우 시장이 새해 첫 산업현장 방문지로 탄소산업 관련 기관·기업을 택한 것은 고강도 경량 소재인 탄소섬유를



3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소산업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한민국 대표 탄소기업인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피치케이블·유니온시티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기관과 기업의 현황과 올해 주요 계획들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에게 힘찬 격려를 했다.

중심으로 탄소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우주항공·방산시대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하는 등 탄소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우 시장이 방문한 탄소산업 관

련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탄소섬유가 활용되는 수소저장용기와 풍력블레이드,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주요 핵심 수요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등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어 국내 대표 탄소기업인 효성 전주공장과 탄소산업을 기반으로 서있는 향토기업인 피치케이블·유니온시티를 찾아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전주형 탄소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효성은 지난해 연간 생산량 6500톤 규모로 증설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상반기 중 1개 라인을 증설해 연간 9000톤 규모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1개 라인을 추가 증설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총 10개 라인 2만4000톤 규모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알려져 대한민국과 전주의 탄소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 탄소발열자 특허 및 성능 인증을 획득한 '피치케이블'과 도로교통시설물 제작업체인 '유니온시티'는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나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소소재는 미래 첨단산업의 쌀로, 전주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이자 미래이며, 전주형 일자리 지정 및 국가탄소산업 조성 등 탄소산업이 우리 시 강한 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기업·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 전주시, 4억원 투입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앞으로 전주시민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게 되면 20만 원의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상황대처 문제로 인한 교

통사고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 3039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 4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해 2023년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 고령자다.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20만 원 총정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된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마 이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이영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달라진 화재예방법 관심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예방법의 시행을 알리며 달라지는 소방 안전 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지난해 12월까지 시행되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 제정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방(연면적 1000㎡ 이상), 공동구, 철도시설·항만(연면적 5000㎡ 이상) 등에 대해 화재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된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변경했다.

'소방특별조사' 명칭은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연면적 1만 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

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달라진 화재예방법의 세부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전주농기센터, 농업 발전·농업인 소득 향상 위해 44개 사업 추진

전주시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농업 기술을 농가에 보급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올해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을 보급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44개 사업에 국비 4억8600만 원 등 총 26억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신기술 보급사업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드론 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기후변화 선제

적 대응 아열대과수 도입 시범사업,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각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관련분야 전문 기대로 구성된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 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최이영 기자



## 국립임실호국원 신년 참배

### 전북지방방무청

관대일 전북지방방무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3일 진행된 참배는 관대일 전북지방 방무청장과 신규직원 등이 참석해 현 화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

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했다.

관대일 청장은 "계묘년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은 전주완산소방서는 신년참배로 새해를 시작했다.

3일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임직원 및 소방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참배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

서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충탑 현화, 분향 및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